

예비자 교리 교안 3 (11 월 26 일)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느님의 구원(약속)

1.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믿음 혹은 신앙이며 이 신앙으로써 인간은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복종시킨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은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응답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른다.
2. 믿음의 순종이란(‘순종하다’라는 라틴 말 oboedire 는 ob[에게]와 audire[듣다]의 합성어이다.) 자신이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자유로이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보증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브라함(노아)을 이러한 순종의 모범으로 제시하며,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를 가장 완전하게 실현하셨다.
3. 노아: 대홍수 사건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비롯한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한 사람.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세례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보았다. 과연 방주 덕분에 “몇몇 사람만이 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덟 명”(1 베드 3,20)뿐이었다. (믿음 --> 구원)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살아 있는 모든 존재 사이에 영원한 계약을 노아와 맺으셨다. 이 계약은 세상 끝 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죄 때문에 인류의 단일성이 깨어진 뒤(바벨탑 사건 등), 하느님께서서는 먼저 갈라진 민족들 하나하나를 구원하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셨다. 대홍수 이후 노아와 맺으신 계약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낸다.

4. 아브라함: 떠나라!는 하느님의 계시를 비롯한 민족들의 아버지, 아들의 제사 등 항구히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한 사람.

히브리서는 조상들의 믿음을 찬양하면서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히브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순례자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라도 약속된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와 그 후손들과 계약을 맺으셨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마련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준비시키셨다.

5. 결론 : 믿음이란 바로 하느님의 약속(구원)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구약이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하느님의 약속과 그 믿음에 중점이 있다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 즉 구원과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된다.

가톨릭교회 4 대 교리

가톨릭 교회 신자는 이 세계를 창조한 삼위일체인 하느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외아들임을 믿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구원하였음을 믿는다. 인간이 죽은 뒤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이를 천주존재, 삼위일체, 상선벌악, 강생구속의 4 대 교리라고 일컫는다.

- 천주존재(天主存在):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지배자이신 하느님이 존재하고 계심.
-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세 위격,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심.
- 상선벌악(賞善罰惡): 하느님은 착한 사람에겐 상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겐 벌을 주심.
- 강생구속(降生救贖):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음.